

#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

이경하\*

## 차 례

1.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당위와 효용
2. 이해 혹은 해석의 문제
3. 여성주의를 통한 문학사 재인식의 성과
  - 3.1 여성담론의 젠더 분석
  - 3.2 여성어문활동의 재조명
4. 효용성 증진을 위한 과제

이 글에서는 여성주의 문학연구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문학작품의 해석과 문학사 인식을 위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은 문학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여성주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당위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성과가 소수의 전공자들 사이에서만 소통되는 경향이 강해서 실제로 그 유용성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와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문학연구란 요컨대 여성담론과 여성어문활동에 대한 젠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젠더란 성차에 관한 지식 혹은 시스템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원시·고대로부터 중

\*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세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통해 재현된다. 여성주의 문학 연구는 결국 문학작품과 문학현상을 대상으로 여성담론과 여성어문활동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인 것이다.

여성주의 문학연구는 고전문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성과가 상당히 집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여신의 서사’와 ‘열녀의 서사’에 대한 재해석을 여성담론 연구의 사례로 들어, 그것이 각기 고대문학사와 중세문학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살폈다. 또한 기존에는 주변적 글쓰기로 치부되던 중세의 여성 글쓰기를 재조명함으로써 문학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연구사례를 들어, 여성어문활동에 대한 연구가 고전문학사 재인식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끝으로,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에도 유념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성과가 학계의 소수 전공자들 사이에서 생산·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층위의 교육제도를 통해 확산될 수 있을 때, 여성주의 연구가 의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핵심어 : 여성주의, 젠더, 여성담론, 여성어문활동, 고전문학사, 교육제도

## 1.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당위와 효용

문학 연구 혹은 문학사 인식은 중립적이며 객관적인가? 이 질문에 대해 섣뜻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아마도 현재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웬지 ‘중립적’이란 단어 자체가 더 이상 가치중립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단어에서 가치판단을 유보한, 어딘가 비겁하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느낄 수도 있다. 그만큼 근대학문 초기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에 대한 깨우침은 이미 보편화된 듯하다.

학문적 탐구가 가치중립적이며 객관적인 행위라는 생각은 20세기 후반에 근대 학문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면서 거의 부정되었다. 오히려 학문은 일종의 자기 옹호적 체계로서, “여성이 배제된 제도권이 생산한 학문적 지식은 여성의 배제를 계속 정당화하는 데 이용”<sup>1)</sup>될 뿐이라고 간주된다. 여성주의적 학문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인데, 그것은 여성이라는 한쪽 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평등의 지식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된다.

여하튼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여성주의 시각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인다. 문학이든 역사이든 철학이든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주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만큼, 여성주의 연구의 필요성은 이제 하나의 당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드러내놓고 그 당위를 부정하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여성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망령처럼 강의실과 학회장을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간혹 그 망령은 용감하게 모습을 드러내어 훈수를 두기도 하고 통명스런 몇 마디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최근 10여 년 동안 여성주의를 표방한 학술논문과 대중서가 넘쳐났고 관련 학회들도 번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막연히 혹은 어쩔 수 없이 그 필요성에 동의는 하지만 실상 그에 관련된 논문 한 편,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지 않은 연구자들도 흔하다. 당위를 확보했으니 이만큼 온 것도 성공일까?

여성주의 문학연구를 목표로 한 학회들이 설립된 지 6~7년이 넘었고, 그만큼 국문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은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학회의 설립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늘

1) 잉에 슈테판, 『젠더, 성, 이론』, 『젠더연구: 성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탁선미 외 역), 나남출판, 2002, p.123.

었다. 그러나 여성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연구들이 여전히 소재주의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여성주의 자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종종 접하게 된다.<sup>2)</sup> 학술적 능력이 계량화됨에 따라, 연구자 개개인은 물론 학문의 방향을 선도해야 할 학회조차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양산하는 데 급급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운동의 차원을 넘어, 이른바 순수한 학문적 방법론의 측면에서 여성주의는 과연 유용한 관점인가? 도대체 여성주의 문학연구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것은 문학사 인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문학연구에 여성주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당위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혹은 당위론적으로 재확인하기보다는, 고전문학 분야에서 여성주의 시각이 개별적인 문학작품의 해석이나 거시적인 문학사 인식을 새롭게 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sup>3)</sup>

---

2) “구비설화(문학)의 여성주의적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주의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된다. 여성주의에 대한 무관심은 여성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여성은 이랬다’, 혹은 ‘여성의 이런 점은 훌륭하다’ 식의 소박한 결론으로 나타나기 일쑤이다. 말하자면 이론 부재를 내세우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조현설, 『설화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 『동악어문논집』 37, 2001, p.260)

3) 이 글의 목적이 여성주의적 문학연구의 연구사를 개괄하는 데 있지는 않으므로 관련 논문들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개별 논의가 많이 집적되기도 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이미 몇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고전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여성주의에 관한 논의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지양, 『고전문학연구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낳은 쟁점들』, 『민족문학사연구』 22, 2003 ; 이정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 11, 2004 ; 박무영,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 『고

## 2. 이해 혹은 해석의 문제

문학연구의 대상인 작품 및 그것을 둘러싼 문학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바로 현 당대의 작품에 대한 비평이 아닌 다음에야 거의 모든 문학연구의 대상은 가깝게는 50년, 멀게는 수백 년 전 ‘과거’의 것이다. 때문에 역사 혹은 과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학연구자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화두이다.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할 수밖에 없다.

역사학 연구자가 아님에도 필자가 학부 교양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종종 일독을 권하는 인문학 서적 중 하나는 『마르탱 게르의 귀향』<sup>4)</sup>이다. 이 역사서는 두 편의 영화로 인해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니와, 역사에 대한 물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제기하는 현대 역사학의 새로운 경향을 대변하는 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 책이 역사를 다루는 ‘여성’의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두고 데이비스와 핀레이가 벌인 논쟁은<sup>5)</sup> ‘과거’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역사연구의 방향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데이비스의 해석은 마르탱 게르 사건의 여주인공에 해당하는 베르트랑드에게 주목함으로써 “그 이야기에 대한 여성의 견해”<sup>6)</sup>를 제기한 역사서술이란 점

전문학연구』 28, 2005 ; 김경미, 『소수자 관점에서 본 고전여성문학의 의미와 전망』, 한국고전문학회 동계기획 학술대회 발표문, 2005.11.25. ; 최기숙, 『젠더비평: 메타비평으로서의 고전 독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2006 ; 고정희, 『고전시가 여성 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15, 2006 ; 김정녀,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15, 2006.

4) 나탈리 지먼 데이비스, 양희영 역, 『마르탱 게르의 귀향』, 지식의 풍경, 2000.

5) 광차섭 외 편역, 『미시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미시사의 이론·방법·논쟁』, 푸른역사, 2000, pp.311~407.

에서 이 사건에 대한 종전의 역사해석과 구별된다. 그런데 핀레이는 베르트랑드에 대한 데이비스의 재해석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역사서술의 재구성은 철저하게 문서기록에 근거해야 하는데 데이비스의 역사서술은 그렇지 못하고 차라리 역사소설에 가깝다고 비난했다.<sup>7)</sup>

이런 비판에 대해, 데이비스는 자신의 역사해석이 얼마나 폭넓은 사료들에 근거해 있는지 반박하면서<sup>8)</sup>, 오히려 핀레이의 가장 큰 오류가 농민들의 사고와 입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sup>9)</sup> 핀레이가 주장하는 ‘사료적 명증성’은 원론적 차원에서 당연한 말이지만, 핀레이의 기준에 부합하는 한정된 사료만을 바탕으로 16세기 농촌 여성을 역사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핀레이의 비판의 핵심은 데이비스가 베르트랑드와 그 사건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함으로써 16세기 프랑스 하층여성에 대한 오해를 낳고 결과적으로 역사를 왜곡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스의 관점에서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적극적’ 해석이었다. 그러한 적극적 해석은 역사학이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전제 위에 있다.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의 목표는 사료를 증거물로 해서 무엇이 과거의 엄연한 사실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

6) 로버트 핀레이, 『마르탱 게르 다시 만들기』, 『미시사란 무엇인가』, p.318.

7) 핀레이가 보기에, 베르트랑드는 데이비스의 해석에 의해 “영웅적 인물이자 자립심이 강하고 명석하며, 열정적일 뿐 아니라 변함없이 나뭇의 “지조를 지키는” 여성”(p.316)으로, 또한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인물도 희생자도 아니며, 농민문화 속의 선구적 페미니스트라 할 만한, 영웅으로 거듭 태어나고”(p.343)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 기록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8) 예컨대, 마르탱 게르 사건을 종교적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사료는 전혀 없다는 핀레이의 비판에 대해, 데이비스는 “관련자 모두의 삶을 뒤훑들어 놓았던 지역 종교 운동에 대한 사실들도 하나의 ‘사료’가 됨”을 주장하고, 가짜 마르탱 게르와 베르트랑드의 ‘창안된 결혼’을 16세기 프랑스 농촌지역의 프로테스탄티즘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해 낸다.(나탈리 지먼 데이비스, 『절음발이에 대하여』, 『미시사란 무엇인가』)

9) 위의 글, pp.376~377.

료의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것이다.”<sup>10)</sup> 역사서술이란 엄격한 사료비판으로 완성되지 않는 ‘역사적 가능성을 통한 역사현실의 재구성’인 것이다.

○ 우리시대의 현실은 고전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을 연구자는 늘 강구해야 한다. 이런 대화가 단절될 때 연구자는 실증에 천착하고 쇄말의 그물에 걸려 일종의 학문적 실어증을 면키 어렵다. 우리가 고전문학작품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려고 한 것은 그 대화의 시도이다. 여성주의는 근래 한국 인문학의 주요한 화두의 하나가 아닌가?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고전문학작품을 읽는다는 시도는 단지 작품 속에서 여성의 고난과 성적 억압의 징후들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작품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복적 독해, 우리는 고전문학연구는 이런 도전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sup>11)</sup>

○ 고전문학 연구에서 연구자가 그 시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순간, 오늘날의 잣대로 필요에 따라 죽은 조상들을 매도하거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중략) 오늘날의 문제의식을 과거에 투사시켜, 오늘날의 이해관계 속에 차마 폭로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대리 조명하는 것은 연구의 바람직한 길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비판하기는 쉽고,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충분한 이해를 거쳐 오늘날에도 유효한 전통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참된 이해에 다가가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sup>12)</sup>

핀레이-데이비스 논쟁에서 보이는 역사인식의 현격한 차이는 ‘과거’

10) 김기봉, 『역사서술의 문화사적 전환과 신문화사』, 『오늘의 역사학』(안병직 외), 한겨레신문사, 1998, p.174.

11) 정출현 외, 『책머리에』,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12) 이지양, 앞의 논문, p.437.

문학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 주변에서도 목도된다. 고전문학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를 주장하는 전자의 시각은 과거와의 대화를 위한 ‘전복적 독해’와 ‘도전적 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학문의 현실 연관성에 대한 끝없는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한 학문은 실어증에 걸린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후자는 과거와 현재의 선부른 대화가 위험함을 경고하면서, 고전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 속의 시대에 대한 ‘참된 이해’라고 했다. 비판은 쉽고 이해는 어려우니, “그 시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야말로 고전 연구자의 의무라는 것이다.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를 둘러싼 논쟁을 예로 들어 보자. 정출현은 『사씨남정기』의 ‘악녀’ 교체란이 파멸로 빠져드는 과정을 축첩제도의 모순과 관련지어 해석하면서,<sup>13)</sup>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억압구조가 처든 첩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질곡으로 작용함을 인물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사씨남정기』의 창작의도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이념을 만천하 여성들에게 선포하는 데 있었다 하고, 서사 갈등의 모든 책임을 교씨 개인의 타고난 품성 탓으로 돌리려는 작가의 “주도면밀한 속임수”<sup>14)</sup>를 지적해낸 바 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이지양은, 17세기 세계관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며 김만중의 창작의도를 “매우 이기적이고 사악한 듯이 설명”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시대의 제도나 관습은 개인이 거부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sup>15)</sup> 김만중이 17세기

13) 정출현은 교씨의 악행을 본래의 품성으로 매도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서, 오히려 교씨가 보여준 일련의 악행이 나름대로 ‘이유 있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pp.94~95)

14) 위의 논문, p.111.

15) 이지양, 앞의 논문, p.433.



조선 사람으로서 당시의 가부장적 이념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또한 자기 시대의 이념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듯’ 설명하는 것은 연구자의 폭언이라 하고, 여성주의 연구가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를 논할 때 ‘비난 일색의 논조’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주도면밀한 속임수”란 표현이 몹시 거슬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작가의식의 한계를 표현한 말이지 김만중을 “이기적인 이중인격자”<sup>16)</sup>로 판정함은 아닐 터이다.

『사씨남정기』에 대한 정출헌의 ‘전복적 독해’는 바로 정전의 남성중심성 비판이었다. 정전비판은 여성주의 문학연구가 수행하는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서, 일찍이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신호탄과 같았던 논문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sup>17)</sup>도 현대문학에서 정전의 위치에 놓이는 주요 작품들의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는 것이었다.<sup>18)</sup> 김만중이 웬만한 중·고등학생들도 거의 다 이름을 아는 유명한 고전작가이며, 『사씨남정기』와 『구운몽』<sup>19)</sup>이 한국문학사에서 정전의 반열에 놓이는 작품이란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구운몽』·『사씨남정기』에서 중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억압적 구조를 파헤치고 그 부분에 대한 작가 김만중의 의식지향이 갖는 보수성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러한 여성주의적 해석이 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편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조선후기 문학사에

16) 위의 논문, p.434.

17) 정은희·박혜숙·이상경·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 1, 여성사연구회, 1985.

18) 20세기에 들어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적 연구의 대체적인 경과는 좋고 (2004), pp.10~21 참조.

19) 정출헌은 <구운몽>과 <사씨남정기>가 일견 서로 다른 세계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일한 이념의 양면임을 밝혔다. 정출헌, 『<구운몽>의 작품 세계와 그 이념적 기반』,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른바 역사적 객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역사서술이 과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해’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재적 관점을 함부로 과거에 투영하지 말고 철저히 과거의 관점에 서야 한다고 당부한다.<sup>20)</sup> 문학연구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는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다.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문학연구의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의 작품이 구현하는 주제는 단일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는다. 하지만 이른바 위대한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들일수록 그 작품의 세계는 훨씬 다양한 해석을 향해 열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해석의 과도함을 피하고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을 목표로 할 때, 역사서술이든 문학연구든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현상은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뿐 아니라 문학사 서술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남성이 주도한 문학전통과는 별개로 여성 글쓰기의 고유한 전통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려는 목적의식이 앞섰던 70년대 영미 여성문학사 서술이 해석의 과잉을 보였다면, 20세기 한·중·일의 여성문학사 서술은 상대적으로 정보 전달과 사실 검증에 치중하여 이해만을 목표로 삼았다.<sup>21)</sup> 후자의 경우, 중도를 잘 지킨 만큼 여성문학에 대한 문제의식은 치열하지 않았다. 여성은 소재적 차원에 머물고 세계를 해석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전혀 인식되지 못했다. 여성문학을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과도한’ 해석의 위험은 애초에 없었다.

각 시대의 문학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개별 작품에 대해 적극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데이비스가 추구했던 ‘역사적 가능성을

20) 리처드 에번스, 이영석 역, 『역사학을 위한 변론』, 소나무, 1999, pp.299~300.

21) 줄고(2004), pp.64~70, pp.76~79 참조.

통한 역사현실의 재구성'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과거의 산물인 문학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 해석'이 반드시 상충하는 목표는 아닐 것이다. 한 작품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그것을 둘러싼 문학현상 및 그 시대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특정 관점만을 지나치게 앞세울 때 작품의 실상과 다르게 오독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는 분명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논문의 부분적 오류를 들어 그것을 그 연구가 지향하는 시각과 방법의 오류로 일반화함으로써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논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명제는 여성주의 문학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학술연구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 3. 여성주의를 통한 문학사 재인식의 성과

#### 3.1 여성담론의 젠더 분석

여성주의 문학연구란 여성을 소재적 차원에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비롯한 문학의 제 현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관점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여성이라는 특정 성에만 충성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sup>22)</sup> 여성주의 시각으로 문학을 연구한다고 할 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문학을 둘러싼 '젠더' 분석이다. 젠더를 이야기하는 맥락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용어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sup>23)</sup> 그러나 필자가 이해

22) 송무, 『페미니스트 인문학』, 『젠더를 말한다』(송무 외), 박이정, 2003, pp.31~32.

23)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2002, pp.236~238.

하기에, ‘젠더’는 역사 및 문학사를 바라보는 여성주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젠더란 요컨대 “성적 차이에 관한, 즉 신체적 차이의 의미들을 형성하는 지식”<sup>24)</sup>이며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종종 불안정한, 차이의 시스템”<sup>25)</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지식’은 푸코의 개념으로, 사회와 문화에 의해 생산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일련의 관념과 제도, 구조, 의례, 일상생활의 관행 등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며, 지배와 종속 관계, 즉 권력관계가 구성되는 수단이기도 하다.<sup>26)</sup> 여기서 젠더를 ‘성차’라고만 하지 않고 ‘성차에 관한 지식’이며 ‘성차의 시스템’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역사적 구성물임을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젠더 연구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이 사회적·문화적·정치적·역사적 구성물이며 여성과 남성이 모두 변화하는 존재라는 전제 위에, ‘성차의 시스템’과 ‘성차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해 왔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문학 연구에서 젠더 분석은 작품 텍스트 뿐 아니라 작품과 작가를 둘러싼 문학 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성차의 시스템과 지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현설의 ‘웅녀와 유화의 신화 상실’을 추적한 논문은 젠더 연구의 본보기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조현설은 웅녀와 유화가 각기 단군신화와 주몽신화에서 ‘자기 이야기를 잃어버린, 타자화된 존재’로만 존재하는 데 의문을 품고, 이 건국신화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

24) Joan Wallach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revised edition), p.2.

25) Merry E. Wiesner, *Gender in History*, Malden, Mass.: Blackwell, 2001, p.2

26) Scott, 앞의 책, 같은 면.

적 차별의 체계를 파헤쳤다. 이에 따르면, 웅녀와 유화는 본래 자기 신화를 가진 시조신화의 주체였는데, 건국신화를 구성한 남성권력에 의해 시조신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웅녀와 유화가 환웅과 해모수를 만나 건국의 시조를 낳게 되는 과정은 신성혼이란 이름으로 치장되지만, 실상 그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신성의 베일 속에 가려진 비극의 탄생’이며, 그들의 신화 상실은 “신체화된 인식을 통해 차별을 집단적 믿음, 혹은 집단적 오인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적 차별체계의 영토 위에서 벌어진 고대적 사건”<sup>27)</sup>이란 것이다.

신화에서 여성신격의 존재는 성차에 관한 지식이 원시·고대로부터 중세와 근대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고찰하기에 적합한 주제이다. 원시·고대와 같은 이른 시기의 문학은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여성의 존재는 여기서 더욱 잘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조현설은 중국 어원가족의 시조신화, 공주 곶나루 전설, 경북 봉화산 암콤폴 전설과 같은 여타의 설화 자료들을 이용하여 잃어버린 신화의 흔적을 추적하였다. 이처럼 폭넓은 자료와 적극적 해석을 통해, 남성신적 존재의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었던 고대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일부 수정되면서 한층 심화되고 풍부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적극적 독해가 사료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넘어 원시·고대문학사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고 그 지평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녀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제도와 관념 또한 성차에 관한 지식이라 할 때, 열녀담론은 중세에 젠더가 구성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고찰하는

27)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과 여성』(한국구비문학회 편), 박이정, 2000, p.17.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이다. 이 분야에는 연구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별 연구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sup>28)</sup> 특히 ‘향량이 국가 열녀가 되는 과정’을 추적한 정출현의 논문은 여성주의 문학연구에서 젠더 분석의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른바 ‘향량담론’의 형성과정을 추적한 것으로, 이로써 조선후기에 련에 대한 관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의 일단을 밝혔다. 향량은 계모의 구박과 남편의 학대, 외숙들의 개가 권유 등으로 자기 한 몸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1702년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한 하층 여성이다. 2년 후 그녀에게 정려가 내렸고, 동시대는 물론 이후의 많은 상층남성 문인들이 앞 다투어 그녀를 위해 열녀전을 지었다. 정출현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의 이면에, 선산부사 조귀상과 부민들이 의기 투합한 ‘향량의 열녀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선산지방 실세사족의 위기의식이 낳은 결과이며, 자식이나 여성과 같은 약자를 효자나 열녀라는 이름으로 옥죄어 향촌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정치권력욕의 이면이란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적극적 해석’이 사료의 근거 없이 연구자의 관념 속에서 막연히 선언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귀상의 『향량전』과 이광정의 『임열부향량전』을 비롯한 향량을 입전한 傳들은 물론이고, 경상남도 기장군 김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개인문집과 실기, 실록, 선산지방에 전하는 『烈女香娘圖記』·『義牛圖』·『藥哥圖』 등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이끌어낸 해석이었다. 향량은 물론이고 15세기 열녀 약가와 주인을 위해 싸운 소와 개 등 선산지방에서 ‘義烈’로써 묶을 수 있는 여성과 짐승의 이야기

2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참조.

29)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2001, pp.151~157.

를 한결같이 길재의 충절과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이 지방 사족들의 집요함<sup>30)</sup> 이 자료들의 행간에서 읽어낸 것이다. 이 논문은 한 하층여성의 죽음을 중심에 놓고 ‘마치 동심원을 그리듯’ 연구 영역을 확장해 감으로써 그녀가 그 지방 사족들에 의해 국가열녀로 거듭나는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젠더 분석의 방법적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위에서 거론한 ‘여신의 서사’와 ‘열녀의 서사’는 한국고전문학사에서 오랫동안 지속성을 가지고 전개된 여성담론의 주제들이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위계화하는 것이 담론의 힘이고<sup>31)</sup> 담론의 힘이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어문생활<sup>32)</sup>이다. 따라서 여성담론에 대한 젠더 분석은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원시·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통해 여성담론이 형성되고 변화해온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문학사 전개를 새롭게 인식하는 하나의 유용한 관점일 수 있는 것이다.

### 3.2 여성어문활동의 재조명

문학사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인식한다는 것은 요컨대 여성어문활동 및 여성담론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역사적 재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다. 여성담론 연구가 기존의 페미니즘 문학연구가 수행했던 여성 이미지 연구와 연결된다면, 여성어문활동 연구는 여성의 글쓰기 연구와 맥이 닿아 있다. 여성어문활동에 대한 연구는 어문활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규명으로, 그것은 글쓰기와 글읽기, 필사와 유

30) 위의 논문, pp.144~151.

31) 이상호, 『아비투스과 상징질서의 새로운 사회이론』, 『문화와 권력』(현택수·외), 나남출판, 1998, p.124.

32) 어문생활이란 어문활동의 주체가 기존의 텍스트를 소비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 전체이며 동시에 그 텍스트를 가리킨다. 어문생활의 개념과 그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줄고(2004), pp.97~112.

통의 주체로서 여성이 문학사의 전개에 관여해온 방식과 그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0세기 여성주의 문학연구가 여성어문활동의 분야에서 이룩해낸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보다 각국의 여성문학사 서술 경과를 통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sup>33)</sup> 여성어문활동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고 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젠더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문생활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차의 시스템을 문제 삼는다. 근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러한 차별적 시스템이 존재했고 여전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근대 이전 시기, 특히 공동문어문자와 민중어문자의 위계가 신분과 성별의 위계와 맞물려 있었던 중세의 경우, 여성어문활동에 대한 논의가 단지 여성이 생산한 텍스트 자체에 국한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문학연구는 어문생활 내에 존재하는 성차의 시스템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문학사 서술에서 의식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누락되었던 ‘주변적 글쓰기’를 재발견해 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국고전문학 연구사에서 보면 주변적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언간과 같은 자료에 대한 연구는 실상 국어학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주변적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례들을 새로 언급하고 수집·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 글쓰기와 같은 여성어문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젠더 분석은 여전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한 예로서 박혜숙의 ‘여성자기서사’<sup>34)</sup>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33) 20세기에 영미를 비롯한 유럽과 한·중·일에서 이루어진 여성문학사 서술의 전반적인 경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줄고(2004) 참조.

34) 자기서사란 “화자가 자기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회고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



이 연구는 중세 사회에서 여성이란 존재와 여성 글쓰기의 주변성에 대한 뚜렷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금지가 사회의 공식적 입장이었던 시대에 여성의 글쓰기 행위는 여성답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것은 종종 “사회적 심리적 장애물 넘기를 수반하는 행위였다.”<sup>35)</sup> 이런 시대에 여성과 같은 주변적 존재의 경험은 주변적 글쓰기 양식을 통해 재현되는 경우가 많았으리라는 가설 하에, 이 논문은 비제도권·비주류적 문학장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여성문학연구가 기존에 당연시되어온 장르서열을 허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6)</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즈그록』이나 『규한록』 등은 단지 여성의 글쓰기라는 이유만으로 한번쯤 거론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문제적 텍스트로 떠오른다.

박무영이 여성한시의 말하기 방식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도 중세 여성어문활동에 대한 젠더 분석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여성 한시작가들은 그 시대 여성이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여성적인 것’이라고 규정된 것들의 틈새를 뚫고 다양한 언어적 전략을 구사한다. 여성한시의 말하기 전략은 결국 ‘약자의 말하기 방식’이며, 여성한시는 약자의 말하기 방식이나 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에게 금지된 문학을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7)</sup> 이러한 해석은 ‘脂粉氣’ 운운하며 여성한시의 미적 성취를 열등한 것으로 폄하하는 남성문인들의 시각을 거부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학성의 기준을 탐색하는 작업의 일환이라 하겠다.

---

문학연구』 8, 2002, p.10)

35)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2002, p.336.

36) 위의 논문, p.8.

37)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 1999, pp.41~42.

연구 시각의 변화는 작품에 대한 재해석뿐 아니라 연구 영역의 확대와 새로운 범주 설정을 유도한다. 20세기에 각국에서 여성문학사를 서술해온 경과를 보아도 여성어문활동에 대한 기술이 대개 협의의 ‘문학’에서 광의의 ‘글쓰기’로 확대되고 텍스트 중심에서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변화의 흐름은 영미를 비롯한 서구의 여성문학사 서술에서 20세기 이전을 다룰 때 더욱 두드러졌다. 『이탈리아 여성글쓰기 역사』 서문에서는 ‘글쓰기’의 역사를 표제로 내세운 이유를 밝혔는데, 여성의 글쓰기 사례들이 이른바 ‘문학’의 전통 속에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여성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문학의 관습적인 갈래체계를 넘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sup>38)</sup> 그런 사정은 이탈리아 뿐 아니라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대체로 비슷하다.<sup>39)</sup>

여성의 글쓰기는 대개 오랫동안 상층남성에 의해 주도된 문학사에서 주변부에 속했던 만큼 기존의 문학 개념과 문학적 가치 기준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여성 글쓰기에 대한 재평가는 요컨대 ‘문학적 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동반한다. 주변적 글쓰기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은 여성주의 문학연구가 수행하는 자국문학사 재인식을 위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여성주의 문학연구는 여성어문활동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여성문학사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문학사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여는 하나의 출구일 수 있는 것이다.

---

38) Letizia Panizza and Sharon Wood ed., *A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Ita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1.

39) 국내외 여성문학사 서술에 나타나는 문학 개념과 범주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즐고(2004), pp.21~28.

#### 4. 효용성 증진을 위한 과제

여성주의 시각이 “피억압자로서의 정치적 위치 및 의식”<sup>40)</sup>에서 출발하는 만큼 여성주의 문학연구는 당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문적 탐구가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학문적 객관성이 곧 비당파적인 시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계급이나 성별에서 출발한 ‘정치적’ 연구가 오히려 학문의 객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여성주의 시각이 다른 모든 입장들을 통합하고 심지어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인 듯 과장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기존의 학문이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믿었던 것만큼이나 착각이고 또 다른 욕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여성주의와 같은 당파적 입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학문은 그 성과의 대중화와 전달 효과에 보다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시대에 존재했던 성차에 관한 지식 혹은 성차의 시스템이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통해 현대에서 재생산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성과를 인문교양서의 형태로 대중화하는 작업에 못지않게 교육 현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아닌 경우, 초·중·고등교육 과정에서 접한 문학 작품과 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문학에 대한 평생의 지식을 대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서는 문학정전이 발휘하는 효과를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도구가 되는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 때문에 국어 및 문학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40) 김영희, 『페미니즘과 학문의 객관성』, 『여성과 사회』 10, 1999, p.188.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보다 다양한 시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전공 수업시간 뿐 아니라 문학과 관련된 여러 교양 수업시간을 통해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성과를 전달하기에 보다 용이하다. 예컨대, ‘고전문학사’ 수업은 흔히 문학사적 위상이 높다고 간주되었던 작품이나 작가를 중심으로 한 학기 커리큘럼을 구성하기 쉽지만, 여성담론의 변화와 지속이란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원시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 장르를 다룬다면, 학생들에게 문학사의 전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구체적인 성과들도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앞 시대에 생산된 무수히 많은 문학작품 가운데 극히 소수만이 특정한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채택되고 반복해 가르쳐지면서 다음 시대로 생명력을 이어간다. 다수 가운데 소수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 시대에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고들 한다. 문학작품이든 그에 관한 학술논문이든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까닭에, 정전의 지위와 기존의 해석이 차지하는 권위와 힘은 매우 견고하다. 때문에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성과가 다만 소수의 전공자들 사이에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제도의 틈을 뚫고 보다 대중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학술적인 성과를 내는 것 못지않게 여성주의 문학연구자들이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몫이라 할 것이다.

□

고정희, 『고전시가 여성화자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pp.7~31.

곽차섭 외 편역,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pp.1~449.

- 김경미, 「소수자 관점에서 본 고전여성문학의 의미와 전망」, 한국고전문학회 동계기획 학술대회 발표문, 2005.11.25.
- 김영희, 「페미니즘과 학문의 객관성」, 『여성과 사회』 10, 1999, pp.185~213.
- 김정녀,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pp.33~72.
- 나탈리 지먼 데이비스, 양희영 역, 『마르탱 게르의 귀향』, 지식의 풍경, 2000, pp.1~237.
- 리처드 에번스, 이영석 역, 『역사학을 위한 변론』, 소나무, 1999, pp.1~343.
-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pp.15~42.
- 박무영, 「『한국문학통사』와 한국여성문학사-여성문학사를 위하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pp.79~113.
-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pp.7~30.
- 박혜숙 · 최경희 ·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pp.323~349.
-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페미니즘과 인문학의 만남』, 박이정, 2003, pp.1~389.
-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pp.1~344.
-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pp.231~261.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p.1~161.
- 이지양, 「고전문학연구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낳은 쟁점들」, 『민족문학사연구』 22, 민족문학사학회, 2003, pp.410~440.
-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 11, 국문학학회, 2004, pp.51~82.
- 정은희 · 박혜숙 · 이상경 · 박은하,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이상경), 소명출판, 2002, pp.305~361.

- 정출현, 「<구운몽>의 작품 세계와 그 이념적 기반」,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pp.123~179.
-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pp.127~163.
-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pp.1~338.
- 조현설, 「웅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구비문학과 여성』 (한국구비문학회 편), 박이정, 2000, pp.1~18.
- 조현설, 「설화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 『동악어문논집』 37, 동악어문학회, 2001, pp.239~270.
- 최기숙, 「젠더비평: 메타비평으로서의 고전 독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pp.319~348.
- 탁선미 외 역, 『젠더연구: 성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나남출판, 2002, pp.1~533.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pp.1~402.
-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 나남출판, 1998, pp.1~263.
- Panizza, Letizia and Sharon Wood ed., *A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Ita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1~361.
- Scott, Joan Wallach,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revised edition), pp.1~267.
- Wiesner, Merry E., *Gender in History*, Malden, Mass.: Blackwell, 2001, pp.1~246.

**Abstract**

## Usefulness of Feminist Study of Literature and Classical Literary History

Lee, Kyung-Ha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discuss whether feminist study of literature is useful or not, and if then, how it has contributed to recognition of Korean classical literary history. It seems that a few denies the necessity of feminist study of almost every academic sphere, but it doesn't mean that they sincerely understand diverse results of it. It times that we should be interested in its usefulness.

Feminist study of literature has progressed in two fields. One is discourse on women, another is women's literary liv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interpretate 'gender' in literary history, of course based on correct understanding of literary texts and literary phenomena around them. Gender means 'a knowledge of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a system of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Feminist study of literature is to analyze 'a knowledge or a system of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in literary texts and phenomena.

It has got pretty much result in a sphere of Korean classical literary history. For example, new interpretations of 'goddess narratives' has offered a different viewpoint on the ancient times' literature. Interpretations of 'narratives of a virtuous woman that suicided herself for her husband' has offered a new recognition of the medieval times'

literature. A new interest on the value of women's writing is another example of feminist study of literature.

To let the public know the diverse results of feminist study of literature is another very important task of feminist scholars. It could be said that the task is to improve the necessity of feminist study of literature and to accomplish it. Therefore, feminist study of literature should include an interest on a system of education of literature accomplish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universities.

**Key words** : feminist study of literary, classical literary history, gender, discourse on women, women's literary lives, education of literature.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